

학습영역	제목	쪽수
개념학습 02강 사회·문화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	1
개념학습 03강 사회·문화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	4
개념학습 04강 사회·문화	탈역사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7
적용학습 사회·문화 01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	8
적용학습 사회·문화 02	이민과 이중차분법	11
적용학습 사회·문화 03	정부 부채	13
적용학습 사회·문화 04	기후 변화와 미래 가치의 할인	14
적용학습 사회·문화 05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17
적용학습 사회·문화 06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20
적용학습 사회·문화 07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24
적용학습 사회·문화 08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27
적용학습 사회·문화 09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	29
적용학습 사회·문화 10	신종 사채의 종류와 특징	33
적용학습 사회·문화 11	정부의 입법 절차	34
적용학습 사회·문화 12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선출 방식	36
적용학습 사회·문화 13	측정에서의 척도와 척도 수준	38
적용학습 사회·문화 14	코퍼러티즘	40
실전학습 2회 사회·문화	유류분 제도	42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년 고2 9월 - 국제정치 패러다임)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동맹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이는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에 동맹국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 낮고, 다음으로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 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정도였다. 따라서 ㉢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 현실주의자들과 ㉤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 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 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관계에 주목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상호 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의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 ③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 ④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 ⑤ 중립조약은 서명국이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이다.

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사회의 문제를 ㉣은 힘의 관계에, ㉤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② 국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은 국가적 이기심, ㉤은 세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③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 상호 협력이, ㉤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동맹이 변화하는 이유를 ㉣은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으로, ㉤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았다.
- ⑤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은 구성원 간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 ① A국이 B국과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A국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군.
- ②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B국과 C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 ③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단호했다.
- ③ ㉢: 그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 대회에 나섰다.
- ④ ㉣: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⑤ ㉤: 나는 그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

{해설} 1쪽  
{해제 존재 X}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년 수능특강 - 국제정치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국제 정치는 개별 주권 국가들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정치 현상을 가리킨다. 국제 정치의 목표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이다.

이상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이 사회와 정치 등 인간 역사 발전의 결정 요인이라고 본다. 그런데 완전한 이상주의자들은 이상과 목적에 ㉢치중하여 객관적 조건과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현실을 외면한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정치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와 달리 현실주의는 인간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발전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극단적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희망과 의지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현실을 수긍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치중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정치를 통해 추구할 이상과 목적을 외면하고 정치 현실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도록 한다.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상반된다. 이상주의자들은 정치 이론을 정치가가 현실 정치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정치 이론은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상주의자들은 이상만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는 이상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현실주의자들은 그 이상조차도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영향 받은 산물로 여기면서 현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견지한다. 이상주의는 도덕적 원칙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정치는 이 숭고한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실주의는 도덕적 원칙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 원칙 자체도 기존 사회 질서 혹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절된 정치적 산물로 본다. 따라서 도덕적 규범도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지 정치와 무관한 데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최고의 선은 가장 도덕적인 것 혹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된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국제 연맹 창설을 통해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를 창조하겠다는 이상주의적 세계 평화론이 한동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 정치 연구를 이상주의가 압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이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상주의가 힘을 잃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바람직한’ 것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국제 관계를 중시할 것을 주장한 현실주의가 대두하였다. 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을 ㉤집대성한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한스 모겐소이다.

모겐소는 국제 관계가 국가 상호 간의 힘의 관계, 즉 권력 투쟁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하였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 권력(power)의 본질을 ㉔직시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원초적 특성을 국가 간의 권력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사회를 모두가 합의하는 공통의 지배자가 없이 자의적 판단력을 가진 국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로 본다. 모겐소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욕과 그에 따른 권력 투쟁을 인간 사회의 근본이라고 ㉓단정하였다. 그리고 권력 투쟁이 결코 무지나 오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인 비이성적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 이론의 근간인 ‘권력’을 타인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정치 주체들 간의 심리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겐소의 견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국력을 구성하는 9개의 요소를 열거하면서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그리고 좋은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 점이다. 모겐소는 국력에 맞는 목적 설정, 즉 건설한 외교 정책 수립이 외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과 경찰력 등으로 구성된 정치력을 최대화하는 길은 일방적으로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실 국제 정치가 냉혹한 권력 투쟁임을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 간의 불가피한 권력 투쟁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치력 혹은 외교의 역할에 따라 평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모겐소는 사실상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 평화론을 제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정치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제시하고 각 이론을 근거로 현실 정치에서 해결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국제 정치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고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의 이론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③ 국제 정치 이론 중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두 이론이 경쟁 관계 속에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④ 국제 정치 이론을 선도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현실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부침을 겪는 과정을 서술하고 각 이론이 그 과정에 대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추종자들이 범한 과오가 현실 정치에서 일으킨 문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열거하고 있다.

7.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정치가 완전하게 해결한 국제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 ② 국제 정치를 통해 개별 주권 국가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③ 국제 사회가 국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 ④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 ⑤ 국제 정치 이론 중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후에 등장한 이론은 무엇인가?

8. ㉑,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역사 발전의 결정 요인을 ㉑은 인간의 자유의사나 창조성이라고 보는 반면에, ㉒은 인간이 처한 객관적 조건들이라고 본다.
- ② ㉑은 정치 이론을 정치 행위의 규범으로 보는 반면에, ㉒은 정치 이론이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㉑은 정치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㉒은 도덕적 원칙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 ④ ㉑은 이상만을 유일한 진실로 여기는 반면에, ㉒은 이상 또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산물로 여긴다.
- ⑤ 완전한 ㉑을 추구하는 이들이 정치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극단적인 ㉒을 추구하는 이들은 정치 현실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9. 모겐소의 관점에 따라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국가 간 관계의 핵심은 ‘힘으로 정의된 이익(interest)’이다. 국가는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따름이며 자국의 이익 방어에서부터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국의 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특정 국가의 지나친 패권을 제어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 ① ‘힘으로 정의된 이익’이란, 국가 상호 간의 권력 투쟁에 의해 결정된 국제 관계의 우열에 따라 결정된 이익이겠군.
- ②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 권력을 활용하게 되겠군.
- ③ 국가가 자국의 이익 방어에 그치지 않고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힘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방적으로 힘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④ 국가가 자국의 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권력 투쟁이 인간 본성인 비이성적인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이겠군.
- 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에 근거한 정치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현실 정치의 특성 때문이겠군.

1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떠한 것에 특히 중점을 둠.
  - ② ㉡: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
  - ③ ㉢: 여러 가지를 모아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완성함.
  - ④ ㉣: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김.
  - ⑤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해설}** 1~2쪽

**{해제}** 이 글은 국제 정치 이론의 양대 산맥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 설명한 후,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한스 모겐소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이 역사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현실주의는 인간이 아닌 객관적 조건에 의해 역사 발전이 결정된다고 보는 객관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 두 이론은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 때로는 이상주의가, 때로는 현실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한스 모겐소는 현실주의 이론을 집대성한 학자로, 현실주의론이 그러하듯이 국제 관계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외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 평화론을 제창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

국제 정치에서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구성}**

- 1문단: 국제 정치의 목표와 국제 정치 이론
- 2문단: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상반된 입장 ①-역사 발전의 결정 요인
- 3문단: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상반된 입장 ②-이론과 실제, 도덕과 정치
- 4문단: 이상주의의 약화와 현실주의의 대두
- 5문단: 한스 모겐소의 이론과 그 의의

# 정답 및 해설

**• 사회 · 문화 •**

정답

1	③	2	⑤	3	①	4	③	5	⑤
6	②	7	②	8	⑤	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①	19	④	20	②
21	④	22	②	23	②	24	⑤	25	①
26	①	27	⑤	28	④	29	②	30	③
31	②	32	④	33	②	34	④	35	⑤
36	③	37	①	38	④	39	②	40	③
41	④	42	③	43	①	44	②	45	⑤
46	②	47	③	48	⑤	49	②	50	⑤
51	④	52	①	53	③	54	③	55	②
56	④	57	⑤	58	④	59	⑤	60	⑤
61	④	62	⑤	63	③	64	⑤	65	①
66	②	67	⑤	68	③	69	①	70	④
71	①	72	②	73	⑤	74	⑤	75	②
76	①	77	④	78	⑤	79	①	80	⑤
81	④	82	③	83	④	84	①	85	③
86	④	87	③	88	③	89	③	90	①
91	③	92	①	93	⑤	94	④	95	③
96	①	97	②	98	①	99	③	100	④
101	①	102	②	103	⑤	104	⑤	105	①
106	②	107	①	108	⑤	109	④	110	⑤
111	④	112	③	113	①	114	②	115	②
116	③	117		118		119		120	

해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패권국이 출현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동맹국 간의 자율성은 방위조약의 경우 가장 낮고 중립 조약, 협상 순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해 방위조약의 동맹국 간 정치·외교적 관계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연구에서 방위조약의 수명이 가장 길고 중립조약, 협상 순으로 짧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동맹은 양국의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수명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비교하기**

3문단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변화를 구성원이 상호 작용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의 문제를 힘의 관계에, 구성주의자들은 상호 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동맹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동맹이 변화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A국과 B국의 동맹 파기를 A국 구성원의 신뢰와 연관 지어 설명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서 구성주의자들은 동맹관계에서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A국의 여론이 C국과의 조약에 반대한다면 이는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나는 그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의 ‘맺다’는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의 ‘맺다’로 ㉠의 ‘맺다’와 같은 의미이다.

①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의 ‘나누다’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의 의미로,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의미를 지닌 ㉠의 ‘나누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③ ‘그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 대회에 나갔다.’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지닌 ㉠의 ‘이루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6.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은 국제 정치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고 있다. 역사 발전의 결정 요인, 이론과 실제의 관계,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두 이론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한스 모겐소의 이론을 소개한 후, 그의 이론이 사실상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 평화론을 제창한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국제 정치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 이론을 근거로 현실 정치에서 해결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4문단을 보면, 이상주의를 근거로 한 이상주의적 세계 평화론이 한동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으나,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다시 반복되면서 힘을 잃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실주의를 근거로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2문단을 보면, 극단적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단점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이론의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은 없으며, 두 이론이 경쟁 관계 속에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두 이론이 현실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부침을 겪는 과정에 대응하며 발전한 양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2문단을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과오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이 현실 정치에서 일으킨 문제와 그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문단을 보면, 국제 정치는 개별 주권 국가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목표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두 이론은 국제 정치를 통해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문단에 따르면,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국제 연맹 창설을 통해 이상주의적 세계 평화론이 한동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한 듯했으나,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다시 반복되었으므로 국제 사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국제 사회가 국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사건은 알 수 없다.

④ 이 글에는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으나, 두 가지 이론이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후에 등장한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을 보면, 극단적인 ㉠을 추구하는 이들(극단적 현실주의자)은 인간의 희망과 의지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현실을 수긍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정치 현실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완전한 ㉠을 추구하는 이들(완전한 이상주의자)은 이상과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해 그들이 개혁하려는 정치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을 보면, ㉠은 인간 역사 발전의 결정 요인이 인간의 자유의사와 창조성이라고 보고, ㉡은 인간이 처한 객관적 조건이라고 본다.

② 3문단을 보면, ㉠은 정치 이론을 정치가가 현실 정치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본다. 반면에 ㉡은 정치 이론이 현실 정치 형태의 법칙을 편찬,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3문단을 보면, ㉠은 도덕적 원칙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정치가 이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은 도덕적 원칙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④ 3문단을 보면, ㉠은 이상만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가 이상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은 그 이상조차도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산물로 여기면서 현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세력 균형'을 특정 국가의 지나친 패권을 제어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 국가가 지나친 패권을 지니지 않게 하는 것, 즉 여러 국가들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이상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겐소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이다. 또한 현실 정치가 최고의 선으로 여긴 것은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힘으로 정의된 이익'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힘에 의해 이익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5문단을 보면, 모겐소는 국제 관계가 국가 상호 간의 권력 투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권력 투쟁의 결과로 결정된 국제 관계의 우열에 따라 국가의 이익 또한 결정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국가는 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5문단을 보면, 모겐소는 권력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여겼는데, 권력이 곧 <보기>에서 언급한 '힘'이므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당연히 권력을 활용할 것이다.

③ <보기>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 방어에 그치지 않고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국의 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모겐소는 정치력을 최대화하는 길은 일방적으로 힘을 강화하지 않고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 방어에 그치지 않고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힘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방적으로 힘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국가는 자국의 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원초적 욕구는 자국의 이익 방어에서부터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른다. 5문단을 보면, 모겐소는 모든 인간이 가진 지배욕과 그에 따른 권력 투쟁을 인간 사회의 근본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원초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욕구를 이성적으로 자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는 권력 투쟁이 인간 본성인 비이성적인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본질을 직시한다.'에서 '직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진실을 바로 봄.'이다.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김.'은 '중시'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